

오대산의 두 번째 이야기

야생생물

오대산의 생물자원

오대산은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이루는 백두대간의 중간에 위치해 한반도 북부와 한반도 중부에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들을 관찰하기에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이란 개체 수가 적어 멸종할 위험이 높은 종을 말하며 멸종의 위험도에 따라 I급과 II급으로 구분 됩니다. 오대산에는 41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16cm의 포식자 무산쇠족제비

족제비과와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에 속하며, 한 마리가 매년 2,000~3,000 마리의 설치류를 잡아 먹습니다.

겨울의 무법자 참수리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에 속하며, 11월 초순에 도래 해 3월 하순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입니다.



주황색 정열 날개하늘나리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에 속합니다. 약 1.5m까지 자라며, 7~8 월경에 개화합니다.

오대산의 멸종위기야생생물 41종 국립공원 멸종위기종의 23.2%

구분	주요자원	
I급	포유류	붉은박쥐, 작은관코박쥐, 수달, 산양, 사향노루
	조류	검독수리, 참수리
	곤충	장수하늘소
II급	포유류	담비, 무산쇠족제비, 삿,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조류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따구리, 독수리, 벌매, 새매,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양비둘기, 올빼미, 참매, 큰말뚝가리, 팔색조
	곤충	깊은산부전나비, 멧조롱박딱정벌레, 참호박뒤영벌, 큰홍띠점박이부른부전나비, 큰자색호랑꽃무지, 왕은점표범나비
	어류	열목어, 한독중개, 가는돌고기
	식물	개병풍, 기생꽃, 산작약, 북주머니란, 가시오갈피나무, 날개하늘나리
양서파충류	구렁이	

대표 야생생물

구분	주요자원	
식물자원	주요 식물상	팔배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소나무, 아까시나무, 국수나무, 물오리나무, 병꽃나무, 당단풍, 제비꽃, 미역줄나무, 생강나무, 정향나무, 산개나리 등
	주요 식물군락	신갈나무-소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물갯나무군락, 당단풍군락, 좁잎산오리군락, 소나무군락, 노랑제비꽃군락 등
고등균류	자주줄기버섯, 줄기버섯, 수원무당버섯 등	
동물자원	포유류	청설모, 다람쥐, 족제비, 두더지, 멧토끼, 등줄쥐 등
	조류	참새, 박새, 까치, 붉은머리오목눈이, 쇠박새, 노랑턱멧새, 꼬꼬리, 노랑할미새, 여치, 큰오색딱따구리, 쇠황조롱이 등
	양서류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청개구리, 참개구리, 홈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파충류	아무르장자범, 쇠살모사, 유향목이, 도마뱀 등
	어류	버들치, 피라미, 돌고기, 모래무지, 꺾지, 잉어 등
곤충	고려집게벌레, 무당벌레, 실베짱이, 넓적사슴벌레, 애사슴벌레, 왕거위벌레, 호랑꽃무지, 참매미, 왕자말랑나비, 호랑나비, 줄나비 등	
저서성 대형무척추	산골줄날도래, 녹색강도래, 가재, 보통열새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새솔리기, 독수리, 벌매, 말뚝가리, 조롱이, 참매, 큰기러기, 까막딱따구리, 올빼미, 수리부엉이, 흰목물떼새, 고려집게벌레, 왕은점표범나비, 쌍꼬리부전나비, 맹꽁이, 독중개, 미선나무 등	

국립공원 생물들의 수호자

야생생물보호단

야생생물보호단은 국립공원의 주요 야생 동식물 및 서식지를 보호·조사하고,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전담팀입니다.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은 야생 동·식물 조사, 생태이동통로 관리 및 모니터링, 로드킬 조사, 특별보호구역 관리, 외래종 제거, 자생식물관찰원 관리 등 다양한 야생생물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 모니터링



외래생물 제거



야생생물 구조 및 방사



로드킬 조사

야생 동·식물과의 약속,

국립공원 애타캣

1. 야생식물(중자 열매 등)은 채취하지 말아주세요.
2. 국립공원 진입도로에서는 서행 운전하세요, 야생동물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3. 귀엽다고 해서 먹이를 주면 안됩니다, 이가 썩거나 야생성을 잃어 먹이 활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대산에서 들려주는

오대산의 주요 뉴스

꿈꾸는 열목어, 열목어 보호의 시작, 특별보호구역

연어과에 속하는 어류로 물이 맑고 수온이 20°C 이하인 계곡 상류 지역에 서식 합니다. 현재는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위기야생 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국립공원 최초로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열목어

성충으로 우화에 성공한 장수하늘소



성공적으로 우화한 장수하늘소

2009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와 영월 곤충 박물관은 공동조사팀을 구성해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장수하늘소의 서식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수하늘소의 야외적응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성충 암컷 한 마리가 우화에 성공했습니다.

긴점박이올빼미를 지켜라, 인공 둥지 설치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긴점박이올빼미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인공 둥지를 설치해 긴점박이올빼미의 서식 생태와 행동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21년 두 차례 이소(離巢)에 성공하였습니다.



긴점박이올빼미 새끼

멸종위기야생생물 발견! 붉은박쥐, 작은관코박쥐, 토끼박쥐

조사를 지속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된 작은관코박쥐와 토끼박쥐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붉은박쥐가 오대산국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토끼박쥐



오대산 국립공원

ODAESAN NATIONAL PARK

2.야생생물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033) 332-6417



탐방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오대산 야생 생물

검은색 머리에 유백색 얼굴, 곤줄박이

박새과에 속하는 텃새로 오대산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딱딱한 씨앗을 부리로 망치질하듯 두들겨 까먹는 것이 특징이며, 열매를 나무껍질, 돌 틈, 땅속에 감추어 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곤줄박이

봄소식을 안고 오는 너도바람꽃

너도바람꽃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꽃줄기는 10~15cm 높이로 자랍니다. 꽃줄기 끝에 돌려나는 잎처럼 생긴 총포는 자루가 없고, 불규칙한 선형으로 갈라집니다. 3~4월에 개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도바람꽃



동고비

나무를 거꾸로 내려가는 동고비

동고비는 나무줄기를 기어 오르내리며 먹이를 찾습니다. 나무를 거꾸로 내려오기도 하며, 곤충류, 거미, 나무 열매를 주 먹이원으로 삼습니다.

반짝이는 보랏빛, 보라금풍뎡이

몸길이 14~20mm이며, 흑청색인데 보라색, 푸른 청색, 푸른 남색 등 여러 광택이 납니다. 산지에 살며, 봄부터 9월까지 활동합니다. 암컷은 동물의 배설물을 둥글게 뭉쳐서 땅속에 파묻고 뭉쳐 파묻은 배설물에만 알을 낳습니다.



보라금풍뎡이

통통한 뾰족머니, 다람쥐



다람쥐

나무를 매우 잘 타지만 땅 위에서 더 많이 활동합니다. 나무에 난 구멍을 이용하기도 하나 대부분 땅속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동면을 하는데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생강나무 개화 모습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생강나무

생강나무는 3~4월에 꽃을 피우고 9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은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잎이나 가지를 꺾으면 생강 냄새가 나서 생강나무라고 부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누리장나무

마편초과에 속하는 누리장나무는 8~9월에 개화하고, 10월에 열매가 맺힙니다. 잎은 마주나고, 달걀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 자리가 밋밋하며, 양면에 털이 있습니다. 누리내가 나서 '누리장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누리장나무의 열매

산들거리는 강인함, 투구꽃



투구꽃

투구꽃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잎이 손바닥처럼 3~5개로 깊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옆을 향해 피는 꽃은 마치 투구처럼 뒤쪽의 꽃잎이 고깔처럼 전체를 위에서 덮은 모양을 보입니다. 부리는 초오라고 하여 한약재로 사용하나 독성이 강합니다.

오대산에서 살고 있는

특별한 야생 동식물

오대산의 귀한 손님, 홍줄나비

한반도 중북부 산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홍줄나비는 오대산, 설악산 등지에서만 나타나는데 개체 수가 매우 적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흉갈색 바탕에 외황대의 붉은 띠가 굵은 것이 특징이며, 6~8월에 관찰이 가능합니다.



홍줄나비

나는야 황금박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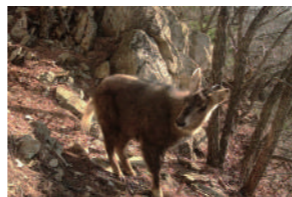


붉은박쥐

애기박쥐과에 속하는 붉은박쥐는 몸 전체가 주황빛을 띠어서 황금박쥐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동굴이나 폐광에서, 국내 박쥐류의 동면 기간 중 가장 오랜 기간인 약 9개월 동안 동면을 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에서는 2015년에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이었습니다.

절벽도 두렵지 않은 산양

소과에 속한 산양은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암벽이 있는 높고 험한 산악지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은 산양복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전이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양

지역주민과 함께 지키는 큰산개구리



과거 북방산개구리로 불리었으나 최근 유전자 분석을 통해 큰산개구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개구리류 중 가장 크며, 산지 하천의 돌 밑에서 동면하는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릉시 삼산4리 주민들은 대체 산란지를 조성하고 로드킬 방지를 위해 많은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 지는 비늘잎나무, 잎갈나무

'잎을 가는 나무'라는 뜻으로 가을에 잎이 지고, 봄에 새 잎이 나와 '잎갈나무'라고 불립니다. 금강산 이북의 높고 추운 곳에 자라며, 남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오대산 잎갈나무의 수령은 약 250년(2019년 기준)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남한에서는 가장 오래된 잎갈나무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전국 산지에 산림녹화용으로 식재된 일본잎갈나무와는 열매, 씨앗, 비늘 모양과 잎 뒷면의 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원사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오대산의 잎갈나무는 2020년 그 역사적·학술적 보호 가치가 인정되어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오대산 잎갈나무

우리나라 토종 '포플러', 물항철나무



귀중한 유전자원인 물항철나무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물항철나무는 한국, 러시아, 중국에서 자라는 식물로 주로 산지의 물가나 골짜기에서 발견됩니다. 2012년에 오대산에서 집단 군락지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남방분포한계지인 오대산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한 집단입니다. 북한에서는 조림 후보목으로 가치가 큰 귀중한 유전자원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대산의 자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오대산 자생식물관찰원



오대산 자생식물관찰원은 오대산국립공원에 있는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증식 등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자생식물관찰원에서는 기생꽃, 개병풍, 산작약과 같은 멸종위기 식물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채집된 자생 종의 종자는 국립공원연구원으로 보내 저장하거나 증식시킨 후 훼손지 복원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야외 관찰원

자생식물관찰원에서 볼 수 있는 자생식물



기생꽃

앵초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강원도와 경상도 등지에 분포하며 높은 산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개화시기> 7~8월



개병풍

범의귀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길이가 1m에 이르는 국내에서 사는 육상 식물 중에 가장 큰 잎을 가진 희귀 식물입니다. <개화시기> 6~7월



산작약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꽃은 줄기 끝에 1개씩 자라납니다. 산지 그늘진 곳에서 자라며, 높이는 50~80cm입니다. <개화시기> 6월

오대산국립공원의 상징

깃대종

국립공원에서는 해당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대표하고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점박이올빼미

Strix uralensis

주로 고산지대 숲속에서 서식하며, 고목 나무 등에 둥 지를 짓고 사는 희귀한 텃새입니다. 몸길이가 약 50cm 정도이며, 올빼미와 비슷하게 생긴 데다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지만 올빼미와 달리 몸 전체에 어두운 갈색의 넓은 세로 줄무늬가 있으며, 주로 설치류, 작은 새, 곤충류 등을 잡아먹습니다. 강원도 산악 지역에 서식하나 아주 드물게 관찰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노랑무늬붓꽃

Iris odaesanensis

백두대간의 높은 산 숲속이나 풀밭 등에 서식하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4~5월에 20~25cm로 자란 꽃 줄기에 노란색 무늬가 있는 흰색 붓꽃이 위를 향해 피어나 노랑무늬붓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대산에서 처음 발견된 한국 특산식물 이어서 '오대산 붓꽃'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참고문헌 <송기엽 외 1명, 2003, 야생화 쉽게 찾기, 진선출판사> <윤주복, 2004, 나무 쉽게 찾기, 진선출판사> <김정환, 2005, 곤충 쉽게 찾기, 진선출판사> <박종길, 야생조류 필드 가이드, 2014, 자연과 생태>	제작 담당 자연환경해설사 신미영 감수 국립국어원 교수 김주미
---	--